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College Library; with Emphasis on Its Reserve Book Service

大學圖書館의 教育的 機能

—課題 이행에서의 奉仕를 中心으로—

崔 成 眞

(서라벌藝術大學 圖書館長)

1. 머릿말

얼마전 高等教育의 改革方向을 다룬 세미나에서 主 題講演을 한 金相浹博士는 「實力있는 大學을 만들기 위하여 形式的 學點制를 止揚하고 課題中心制를 實施 하여 研究 뿐 아니라 授業 助成에도 힘써야 한다」고 文教部에 建議하였다¹⁾

그레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主張은 아니다. 「課題中心制」 授業의 必要는 高等教育 改革을 위한 討議場에서 자주 學論되어 왔다. 어떻게 實施할 것이냐에 대한 具體的 方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必要에 대해선 金相浹博士의 建議를 一般的 結論으로 看做하고 方法問題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한다. 本稿는 方法 研究의 第一段階로 現在 우리 나라 大學들이 「課題中心制」를 實施할 수 있는 與件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問題들을 課題 이행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大學圖書館의 教育的 機能面에서 考察하려고 한다.

教室講義를 대하여 學生들에게 몇 가지 主題(topics)에 대한 情報(Information)를 注入하고 他人의 結論을 紹介하는데 그치는 식의 受動的인 現 大學授業方法에 비해 課題를 통하여 學生들이 能動的으로 自身들의 教育에 參與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革命이 아닐 수 없다. 授業進度에 따라 學生들이 課題를 받고 個別的으로 또는 그룹에 끼어서 時間中에 할 討論을 準備하기 위하여 圖書館으로 가 必要한 資料를 選擇하고 組織하고 分析하고 評價하며 공부한다. 그런 過程을 通해 分別力과 批判能力을 함양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법(how to manage their own education)」²⁾도 배우게 된다. 여기 먼저 確認할 問題가 있다. 學生들이 課題를 이행하는데 必要한 資料와 便利하게 그것을 利用할 수 있는 서서비스가 大學안에 있는지 與否이다. 課題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있지만 거의 다 大學圖書館에 充分한 資料가 있다는 前提아래 課해진다. 充分한 資料의 蓄積만으로도 完全하다고 할 수 없지만...

2. 課題와 圖書館資料

前述한 세미나에서 金相浹博士의 建議內容과 類似한 提案이 다른 主題 發表者³⁾에게서도 나왔다. 文教部가 「卒業에 必要한 總學點을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 減縮하고...學位를 주는 것」을 強力하게 提案하였다. 文教部가 오랫동안 固守해 오던 180學點線에서 160學點으로 取得要求를 낮춘 것은 잘 한 일이나 美國의 120學點에 比하면 아직도 過重한 負擔이며 이런 「남은 制度下에서는 學生들이 每學期 過度로 많은 數의 科目에 注意를 分散하여 充實한 授業 운영에 障礙가 되니 적어도 學點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學點 取得要求를 낮춘다는 事實 만으로 授業이 自動的으로 充實해질런지는 疑問이다. 妙案이 있는지는 모르나 美國의 120乃至 128學點 要求에 대하여 생각할 때 看過해서는 안될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 나라 大學生들이 週當約 20時間 授業을 하는데 비해 美國 大學生들은 約 15時間 教室活動을 함에도 不拘하고 실제로는 後者가 더 많은 時間 공부를 한다는 事實이다. 우리 나라 大學生들은 많은 경우 講義時間에만 科目 공부를 하지만 美國 大學生들은 한 時間 授業을 위해 적어도 두시간 이상을 要하는 課題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課題는 現場調査, 觀察, 關係人士訪問 등 여러 가지 手段과 方法으로 履行되지만 大部分 圖書館資料를 通해서 한다.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말해 한 클래스가 利用할 수 있는 充分한 圖書館資料의 確認없이 課題를 할 수 없다. 오늘 날 많은 大學에서 教授들이 課題를 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실은 學生들이 利用할 資料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與件의 檢討 없이 남의 基準을 따라 卒業學點 要求나 낮추는 것은 能事가 아닌 것 같다. 철저한 課題中心制로 轉換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 大學圖書館이 充實해 지고 課題履行을 支援하는 機能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主張의 採擇은 오히려 改惡이 될 憂慮가 있다.

圖書館資料가 貧弱하여 課題를 내주지 못할 바엔 차

라리 現行 160學點制를 繼繼하여, 講義라도 많이 받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筆者는 卒業學點을 140學點으로 낮춘다는 事實自體에 對해선 異議가 없다. 120學點으로 내린다 해도 좋다. 다만 그럴라면 學生들모하여 금 미리 圖書館資料를 廣範하게 調査해서 討論을 통하여 各者의 結論을 얻도록 돕는 식으로 授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圖書館資料들이 꼭 圖書館을 통해서만 求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書店에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있다. 그러나 大學의 科目들이란 例外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여러 圖書, 專門誌, 其他 文書속에 흩어져 있는 情報나 理論을 다루므로 그런 多樣한 資料를 그 때마다 學生 각자가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當然히 大學圖書館이 그런 資料를 蒐集 整理했다가 내 주는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外國文獻에 크게 依存하는 比較的 새로운 分野의 科目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많은 大學圖書館이 現在 그런 責任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責任을 못다하는 責任을 묻는다면 여러가지를 들어 말할 수 있겠으나 그중의 하나는 아마 大學行政 責任者들의 理解 不足일 것이다. 아직도 「20世紀 初葉型 圖書館」⁴⁾을 念頭に 두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卽 閱覽室을 여러개 지어 놓고 거기 들어와 讀書에 熱中하고 있는 學生들을 바라보면서 圖書館은 잘되어 가고 있으니 더 이상 생각할게 없다고 滿足하는 것이다. 읽고 있는 책이 어떤 것인지, 卽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 圖書館에서 빌린 것인지에는 별로 關心이 없다. 빈 書架를 채우기 위하여 돈 쓰는 일에도 寬大하지 못하다. 閱覽室에서 기껏 집에서 가지고 온 책이나 노트를 읽는다면 그것은 現代的 意味의 圖書館이 아니다.

그것은 單純히 讀書館일 뿐이다. 圖書館奉仕의 核心은 施設活用이 아니고 所藏資料의 利用인 것이다.

지금까지 考察한 것을 要約하여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大學圖書館에는 「課題中心制」 授業을 實施할 만큼 充分한 資料가 있는가? 金相浹博士의 「實力 있는 大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大學行政 責任者들을 于先 이 물음에 「그렇다」는 答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圖書館 利用의 動機 賦與

大學圖書館이 資料蒐集과 組織에 있어 아무리 完璧을 期한다해도 모든 學生들이 다 自發的 動機에서 圖書館에 올 것이라 期待할 수는 없다. 學生들이 圖書館資料를 利用하여 스스로 공부하도록 늘 獎勵하고 어떤 意味에서 強要하는 動機, 賦與를 必要로 한다. 이것을

위해선 教授·司書間에 바람직한 情報交流가 있어야 한다. 常識的인 事實이지만 실제에 있어 傳統的인 兩者間 不信으로 積極的 協調關係와 커뮤니케이션이 成立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 障礙를 克服하기 위하여 兩者는 各己 意識的인 努力을 하여야 하며 共同의 目標 成就를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分明히 알아야 한다. 그럼 教授면에서 알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래에 列舉해 본다.

가. 「圖書館에 어떤 資料가 있는지를 알고 學生들이 그것을 利用하여 공부할 機會를 包含하는 授業計劃을 짜야한다」⁵⁾ 教授가 圖書館資料와 그것을 利用하는 법을 모를 때 圖書館의 教育的 機能이 제대로 發揮될 수 없다.

나. 圖書館資料 利用에 대하여 教室에서 抽象的으로 說明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세 차례 圖書館으로 와서 學生들을 만나 問議에 應해 주고 資料를 찾는 데 直接 도움을 주어야 한다. 모든 教授들이 다 이런 수고를 싫어하고 圖書館資料 利用에 關心이 적다면 캠퍼스 한 복판에 君臨하는 巨大한 圖書館이 있다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웰릭스·모오레(Felix Morley)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아직 送電線에 이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發電機만 가득한 巨大한 發電所와 같다」⁶⁾

다. 學生들이 資料를 얻는 方式을 일일히 指示하지 말아야 한다. 「이 課題는 꼭 새백과사전과 Encyclopedia Britannica를 利用하여 하라」는 식 指示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 可及的이면 學生들이 同一한 資料를 찾아 貸出臺에서 아우성을 치는 일 없도록 配慮해야 한다.

마. 學期初 한 두 시간은 參考司書에게 配當하여 該當科目 공부에 關聯있는 參考圖書와 書誌에 대한 情報를 얻게 하는 것이 좋다.

바. 코스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特殊資料, 예컨대 버티컬·파일(vertical file), 地方史關係文書集 등이 있는지에 대해 司書에게 問議하여 뜻밖에 有用한 資料를 얻을 수 있다.

사. 學生들이 授業進度에 따라 必要되는 새로운 參考資料 利用에 있어 參考司書에게 도움을 請하게 해야 한다.

學生들 가운데는 參考司書의 일을 妨害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바로 個人的으로 資料 利用을 도와주는 것이 參考司書業務의 本領임을 認識시켜 주어야 한다.

圖書館資料를 利用하면서 幅 넓게 공부하도록 動機를 賦與함에 있어 司書가 알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주요한 것만을 추려 다음에 列舉한다.

가. 教授들과 個人的으로 친히 알고 그들의 獨特한 教授法에 대해서 可及的 많이 알아야 한다.

나. 現行 教科課程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修正이 있을 때 마다 즉시 通報되어 새 教科課程의 要求에 副應하는 効果的인 圖書館奉仕를 준비해야 한다.

다. 機會 있을 때 마다 教授들에게 授業過程에서 圖書館資料를 十分 利用하도록 說得해야 한다.

라. 어떤 科目 擔當 教授가 使用하고 있는 資料를 알면 學生들이 그것을 要求할 때 바르게 利用하도록 도와 줄 수 있고 또 代用 可能한 資料도 준비할 수 있다.⁷⁾

마. 새 資料와 새 奉仕業務에 대하여 迅速히 教授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定期收書案内, 注文圖書到着通知, 校內定期刊行物の 圖書館欄, 電話, 訪問 등 알리는 方法은 여러 가지 있다.

바. 授業時間中の 討論, 리포오트, 研究論文 등 準備에 必要한 資料를 제때에 把握하고 要購入圖書目錄에 反映해야 한다.

사. 學生들이 研究를 위해 關聯參考資料를 利用할 때 正確하고 친절한 協助를 提供해야 한다.

아. 어떤 크라스에 有益하리라 생각되는 特殊資料를 發見하면 지체 없이 擔當教授에게 알려주어야 많은 教授들이 圖書館의 잠재적 教育能力을 잘 理解하고 또 많은 司書들이 위에 列擧한 方式을 따라 教授의 要求에 副應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 그들의 努力이 全體的으로 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部分的으로 集中되는 일이 흔히 있다. 課題中心으로 圖書館을 利用해서 하는 공부나 그런 部分的으로 集中된 努力으로 成功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教授와 司書가 서로 相對方이 하는 일을 理解하고 共同目標를 意識하면서 協同함으로 成功을 거둘 수 있다」⁸⁾

4. 指定圖書閱覽室(Reserve Book Service)

學生들의 課題 履行을 積極的으로 돕기 위하여 많은 大學圖書館에 指定圖書閱覽室이 設置되어 있다. 指定圖書閱覽室은 科目擔當教授가 課題로 學生들에게 읽도록 指定한 資料(Required readings) 만을 모아 놓은 閱覽室을 말하며 短期間에 全 크라스員이 同一한 資料를 찾을 것에 對備하여 相當數의 複本(duplicate copies)이나 제록스 寫本(Xerox Copies)을 마련하는 것이 特徵이다.

科目擔當教授의 希望에 따라 指定한 圖書外에 課題 이행에 도움이 될 補充資料를 몇가지 더 내놓는 경우도 있다.

規模가 작은 圖書館에서는 場所와 職員이 다 不足하므로 指定圖書閱覽室이라고 別途의 방이 없고 指定圖書

들을 貸出臺 뒤의 書架에 두었다가 貸出業務 틈틈이 내주는 겹치기 奉仕일 수도 있지만 美國의 큰 大學圖書館들은 여러개의 방을 割當하여 다음 세가지중 한 방법으로 資料를 排列한다.⁹⁾

(1) 閉架制(Closed-shelf system): 모든 指定圖書를 貸出臺 뒤에 두고 請求에 따라 司書가 資料를 내어준다.

(2) 開架制(open-shelf system): 모든 指定圖書를 방주위의 書架에 排列하고 學生들이 自由로히 빼어 보게한다.

(3) 混合式(Combination system): 課題로 주어 읽으라고한 資料 即 要請이 많은 資料엔 閉架制를 適用하고 補充讀書를 위해 내놓은 資料엔 開架制를 適用하는 방식이다.

위의 세가지 方法中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에 대해선 論難이 많으나 美國의 큰 大學圖書館 大部分은 混合式을 採擇하고 있다.¹⁰⁾ 指定圖書貸出을 晝間에는 館內에 限하며 貸出時間은 普通 두 시간이다. 閉館時間엔 館外로 貸出하여 다음 날 閉館時間까지 집에서 읽을 수 있다. 指定圖書閱覽室에 [내놓은 補充資料의 貸出期間은 보통 3日間 또는 一週間이다. 貸出時間(또는 期間)이 차면 指定圖書를 즉각 반환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比較的 많은 罰金을 課하는 것이 常例이다.

指定圖書閱覽室이 제 機能을 다하여 學生과 教授들의 要求에 副應하기 위해선 아래 條件들이 必要하다.

가. 教授는, 課題로 주어 읽게 할 資料들이 모두 學期 始作前 圖書館에 들어와 整理되었는지를 確認해야 한다. 各 科目에 必要한 資料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을 묻는 用紙를 제때에 教授들에게 보낸다.

- (1) 科目名
- (2) 受講豫想者數
- (3) 購入希望圖書名과 題目
- (4) 指定圖書閱覽室에 資料를 내놓는 日字
- (5) 指定圖書閱覽室에서 資料를 빼어 一般書架로 옮기는 日字

나. 科目擔當教授는 課題를 내주기 前에 司書가 指定資料를 모아서 준비할 時間의 여유를 가지도록 適當한 時期에 指定希望資料目錄을 보내야 한다.

다. 教授들은 指定希望資料目錄을 作成할 때 學生들에게 꼭 읽게할 資料와 補充讀書(supplementary reading) 用으로 추천하는 資料를 分明히 區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司書가 어떤 資料의 需要가 많을지 미리 알고 充分한 部數의 사본을 마련할 수 있고 또 補充讀書資料에 대해선 短期館外貸出 準備를 할 수 있다.

라. 需要가 많은 資料는 充分한 部數의 複本을 確保하거나 제록스 寫本을 만들어서 學生들이 定해진 期間

중에 다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많은 司書들이 複本 購入에 圖書豫算을 消費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한 著書에 대한 複本數 最高限度를 設定하는 圖書館도 있다. 어떤 大學에서는 複本購入費의 一部 또는 全額을 使用 크라스員에게 고루 分擔시킨다는 말을 들었다. 複本을 確保하는 問題가 골치거리인 것은 事實이지만 指定資料가 授業上 必要한 資料이며 圖書館은 授業資料를 供給하는데 一次的 責任이 있음을 記憶해야 한다. 圖書館이 授業上의 基本的 必要에 응답하고, 授業方法이 指定圖書의 活用을 要求한다면 그 要求를 充足시킬 複本을 確保하는 責任을 避할 수는 없다.

마. 指定圖書閱覽室에 별로 이용되지 않는 資料가 들어오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 어떤 教授들은 많이 읽게 할 욕심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資料들까지 包含해 많이 들여 오려고 하므로¹¹⁾ 이점에 司書는 언제나 警戒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指定圖書는 學生들이 利用하기 便利하도록 排列하는 것이 原則이다. 開架制 閱覽室에서 흔히 보는 배열법은 다음과 같다.

- (1) 學科別로 資料를 排列한다.
- (2) 學科別로 排列한 것을 다시 科目別로 排列한다.
- (3) 科目別로 排列한 資料를 다시 가나다順 또는 알파벳順으로 排列한다.

效果的인 指定圖書閱覽室 運營을 위한 上記 必要條件들 외에 또 한가지, 아마도 가장 重要한 條件은 「教授의 協調」이다. Henry M. Wriston이 指摘한 바와 같이 「科目設置, 學點配當, 授業方法 등에 관한 一般的인 大學方針이 指定圖書閱覽室의 規模와 奉仕方式에 直接 反映」¹²⁾ 되므로 指定圖書奉仕의 改善은 司書뿐 아니라 教授에게도 꼭같이 주어지는 責任이다. 多數 學生들에게 指定資料를 效果的으로 提供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기 마련이나 教授가 圖書館의 問題들을 理解하고 上記한 必要事項들을 留意한다면 어떤 애로도 解決되고 말 것이다.

5. 맺는 말

形式的 學點制에서 跳躍하여 課題中心으로 充實한 大學 授業을 할 때가 왔다. 課題中心의 授業運營은 充分한 圖書館資料를 前提로 한다. 圖書館에서 學生들이 스스로 資料를 選擇하고 組織하고 分析 評價하면서 배우기 위해선 教授와 司書가 不斷히 學生들에게 利用 動機를 줄 必要가 있다. 이런 動機는 充分한 資料, 能率的인 資料組織, 便利한 奉仕로 말미암아 習性화한다. 本稿는 우리 나라 大學教育의 轉換點에서 如何히 大學圖書館이 그 教育的 機能을 다하기 위해 自體 準備를

해야하는가를 特히 課題 履行을 돕는 奉仕를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한꺼번에 이 모든 일을 다할 수 없다면 于先 이것은 해야 할 것이다. 따로 指定圖書閱覽室을 마련하는 일 課題用 圖書館資料를 優先적으로 사 들이는 일, 그리고 指定圖書閱覽室을 有能한 司書에게 맡기는 일, 大學(學部)의 中心活動은 授業이며 「充實한 授業」은 모든 大學이 바라는 바다. 그런데 充實한 圖書館의 教育的 機能 없이 充實한 授業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參考文獻〉

1. 金相浹, “韓國 高等教育의 改革 方向” (文敎部 教育政策 審議會 主催 地域大學의 特性化 및 高等教育 改革方案 研究 세미나 主題講演, 서울, 1972. 4. 28)
2. Patricia Knapp, “College Teaching and the Library,” *Illinois Libraries*, LII (December, 1970), p. 48.
3. Nobert J. Tracy, “4년제 대학에 있어서의 제문제”(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 主催 地域 大學의 特性化 및 高等教育 改革方案 研究 세미나 主題 發表文, 서울, 1972. 4. 28)
4.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3d ed. New York: Wilson, 1961, p. 144.
5. E. W. McDiarmid, “Library in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Missouri Library Association Quarterly*, XXXII(June, 1971), p. 36.
6. Felix Morled, “The Place of Newer Media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In: H. H. Fussler, ed., *The Function of the Library in the Modern Colle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Library School, 1954, p. 93.
7. E. W. McDiarmid, *op. cit.*, p. 38.
8. Eleanor Devlin, “Thoughts on Freshman Orientation,” *Catholic Library World*, XXXIX (October, 1967), p. 27.
9. Sister Helen, “Simplified Circulation Records for a College Library,” *Library Journal*, LXXXIII (February 1, 1968), p. 181.
10. Guy R. Lyle, *op. cit.*, p. 120.
11. Robert F. Beach, “Some Useful Techniques in the Reserve Book Room,” *ALA Bulletin*, LXII (March, 1969), p. 187.
12. Henry M. Wriston, “The Place of the Library in the Modern College.” In: Louis R. Wilson, ed., *Library Tr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7, p. 160.